

석사학위논문

박물관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 제주돌문화공원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윤 기 혁

2008년 2월

박물관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 제주돌문화공원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용 환

윤 기 혁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2월

윤기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년 2월

<국문초록>

박물관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 제주돌문화공원을 중심으로 -

윤 기 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용 환

대중매체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왔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과거 중앙중심이었던 문화·예술분야를 지역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 가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를 위해 박물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박물관은 과거 귀족들의 사유재산에서 출발하여 점차 근대적 의미의 박물관으로 발전되어 왔다. 박물관은 여가선용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과 욕구들을 체계적으로 충족시키고, 지역주민들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지질학적 특성에 의해 독특한 색채의 풍토를 지닌 곳으로, 삶 속에서 발생한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제주지역에는 이러한 제주도의 문화를 연구하고 알릴 수 있는 박물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의 박물관이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고 지역의 주민들과 자료, 정보를 교류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즐거움을 간직하는 장소로써, 지역문화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으며, 도내 박물관 중에서 제주의 돌문화를 주제로 조성하여 운영중인 제주돌문화공원을 선택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주의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제주지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는 우선 제주도민이 이해하고, 보존하며, 발전시켜야 할 자원임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 지역 박물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지역의 박물관은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의 박물관을 위해 정부, 지자체 차원의 행·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다차원적인 연구를 통해 제주문화를 알리고 제주문화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하여 제주도민의 문화적 쉼터이자 제주지역 문화의 중추적 역할로써 박물관이 제 역할을 다할 때 지역의 문화는 활성화 되어질 것이다.

* 본 논문은 2007년 10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지역문화 중심지로서의 박물관	4
1. 박물관의 개념	4
2. 지역문화에서 박물관의 역할	10
3. 제주도내 박물관 현황	15
4. 지역문화 중심지로서의 제주돌문화공원	24
III. 박물관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37
1. 박물관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37
2. 제주돌문화공원을 활용한 지역문화 활성화	46
IV. 결론	50
참고문헌	52
Summary	55

표 목 차

<표 1> 전시자료의 종류에 따른 분류	9
<표 2> 문화공간 분류	11
<표 3> 우리나라 박물관 현황	16
<표 4> 제주도내 관리주체별 박물관 현황	17
<표 5> 제주도내 박물관 등록 현황	18
<표 6> 제주도내 박물관 지역별 현황	21
<표 7> 제주도내 테마별 박물관 현황	22
<표 8> 제주돌문화공원 시설현황	30
<표 9> 전시자료 확보현황	36
<표 10> 체험적 전시연출 분류	42

그 립 목 차

<그림 1> 성곽형전망대 및 맨발로 산책코스	31
<그림 2>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위령탑	32
<그림 3> 돌박물관	32
<그림 4> 제주형성전시관	32
<그림 5> 돌갤러리	33
<그림 6> 선사·탐라시대의 돌문화	33
<그림 7> 제주돌문화전시관	34
<그림 8> 고려시대의 돌문화	34
<그림 9> 조선시대의 돌문화	34
<그림 10> 제주돌하르방 48기 재현	35
<그림 11> 제주 전통초가 재현	35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문화에 대해 말할 때 과거에는 중앙중심 문화만을 가지고 이야기 되었으나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부터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러서 문화는 중앙중심의 문화와 지역의 문화가 함께 이야기 되는 통합적 문화가 되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서로의 관계에 있어 상하의 관계가 아닌 상생(相生)과 공존(共存)의 관계로 제 역할을 다함으로서 양적·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래에 와서 문화·예술에 대한 논의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지역의 문화가 사회에서 좀 더 부각되어지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모습이다. 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 문화·예술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발전 등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 중앙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문화는 지역중심의 문화로 전환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역문화는 그 지역의 전통문화, 지역민의 생활문화와 같은 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삶 속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그들만의 정서가 녹아든 삶의 반영으로써의 문화를 말하며, 지역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생활양식을 통틀어 지역문화라 하겠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다양한 정보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욕구의 증가로 인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들은 높아져만 가고 있으며, 주 5일제가 실시됨에 따라 점차 늘어가는 여가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생활에 대한 지역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으로 박물관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 등록 운영중인 박물관·미술관등의 시설은 국·공립 9개소, 사립 27개소 등 36개소가 있다.¹⁾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박물관 36개소 외에 미등록 박물관 38개소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박물관을 포함하면 80여 개소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박물관은 지역 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과 욕구들을 체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박물관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흥미와 관심의 유발을 통하여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이것으로 지역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을 때 문화·예술 공간으로써 박물관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박물관을 통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박물관·미술관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제주돌문화공원을 중심으로 박물관이 그 지역사회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여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주지역은 문화적으로 오랜 시간 중앙과의 교류 없이 독자적으로 생성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지며 제주만의 문화를 담을 수 있고 이를 연구하여 제주고유의 문화를 계승·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박물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박물관이 주민들과 동화되어 지역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때 그 지역의 문화는 활성화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 지역의 박물관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참고문헌과 관련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며, 박물관의 기본적인 개념과 지역에서의 박물관이 해야 할 역할과 도내의 박물관의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제주도의 문화 환경과 지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과 자료 제공(2007)

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내 36개의 등록 박물관 중에서 제주의 돌문화를 주제로 조성하여 운영중인 제주돌문화공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용 방안을 연구하였다.



II. 지역문화 중심지로서의 박물관

1. 박물관의 개념

1) 박물관의 정의

2005년 8월 4일 개정된 우리나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하며, ‘미술관’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²⁾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제박물관협회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며, 미술관은 박물관의 일종으로서 그것의 특수한 영역을 이룬다.

최종호는 “박물관은 항구적 복합기관으로서 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며, 공중에게 개방되어야 하고, 문화유산, 생태환경, 자연현상, 과학원리, 삶의 지혜, 역사적 사실 등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수장관리, 연구를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자료와 정보를 교류하며, 전시를 통해서 평생학습과 사회교육에 이바지하고, 운영자와 이용자 상호간에 교류협력을 통해서 즐거움을 제공하고 기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³⁾고 하였다.

박물관의 종류는 다양하다. 미술관, 자연사박물관, 민속학 박물관, 고고학박물관, 역사박물관, 산업박물관, 과학관, 우주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식물박물관 등 다양한 종류의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등을 외국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박물관과 미술관, 과학관등을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2) http://www.mct.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laws/laws_view.jsp

3) 최종호(2004), 「박물관의 이론과 실제: 박물관 실무지침2」, 한국박물관협회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명칭을 가졌던 ‘이왕가박물관’이 후에 생긴 ‘총독부박물관’과의 명칭을 혼동하기 않기 위해 미술품 중심의 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된 듯하다.”⁴⁾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을 하나의 같은 의미의 동일한 개념으로서 사용하였다.

2) 박물관의 역사

박물관의 기원은 BC 3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박물관(museum)’이란 용어는 고대 그리스의 뮤제이온(museion)에서 유래가 된 것으로 ‘뮤제의 집 혹은 뮤즈에 헌납된 사원’을 의미한다. 뮤제이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홉 여신들의 ‘뮤즈의 신전’, ‘명상의 장소’, ‘진리를 탐구하는 시설’ 등을 의미하였다.”⁵⁾ 뮤제이온에서는 회화, 조각 등의 조형 예술, 역사와 철학 등의 학문적 성과, 보물 등이 제례(祭禮)에 봉헌되었으며, 봉헌된 귀중한 유물을 보관하는 보고(寶庫, opistodom)이외에 다양한 공연예술이 펼쳐지는 일종의 복합 문화공간이었다.”⁶⁾

고대나 중세 시대의 박물관은 사유재산에서 출발했고, 비록 수집 기능은 있었으나, 이외의 고전적인 박물관의 기능은 부재된 상황이었고, 흥미위주의 전시를 하고 비싼 입장료를 징수하는 등의 폐단을 보이기도 했다. “중세 말 교회의 권위가 쇠퇴하고 그 자리를 호사스러운 부호나 군주들이 차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주장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14세기 이후 고대의 유물과 각종 예술 작품을 위한 전시실이 급증했다.”⁷⁾

르네상스시대에 괄목할 사항은 ‘박물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용어는 “이탈리아의 부호이자 골동품 수집가인 코시모 디 메디치(Cosimo de Medici)의 손자인 로렌조 디 메디치(Lorenzo de Medici)가 진기한 수집품을 서술할 때 처음으로 사용했다.”⁸⁾ 이 시대에는 수집된 많은 양의 소장

4) 이인범(1991), 「국립현대미술관의 형성」, 현대미술관 연구 제2집, <http://www.moca.go.kr/index.htm>

5) 이보아(2005), 「박물관·미술관의 역사와 현대사회에서의 기능」, 초등교사미술연수, 국립현대미술관, <http://www.moca.go.kr/lecture.htm>

6) 이보아(2003), 「박물관 형성과 박물관 경영의 역사 : 서양을 중심으로」, 미술관학 강좌, 국립현대미술관, <http://www.moca.go.kr/lecture.htm>

7) 심상용(2000), 「대중시대 미술관의 모색과 전망 : 그림 없는 미술관」, 이룸, p.71.

품에 대해서 연구·정리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오늘날의 고고학 박물관, 문화사 박물관의 토대가 이루어졌지만, 박물관의 관람객은 일부 귀족이나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제한되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박물관은 공공 박물관의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박물관이 ‘호기심의 상자’라는 개념으로 변화함에 따라 일반 대중들의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박물관이 대중과 호흡하기 시작한 것도 근대부터이다. 이때 궁정 및 귀족들이 근대적 시민혁명에 의해서 또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소장품을 개방한다든가, 뜻있는 개인이나 국가, 공공단체들이 공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로 수집을 했던 바로 그 시점이 박물관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이자 중대한 진일보로 간주된다.”⁹⁾

19세기에는 일반 대중의 지식개발을 돕는 시민의 교육기관으로서 전문박물관들이 많이 형성되었으며, ‘대중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수의 특정 계층을 위한 박물관의 이념은 사회 전반의 다수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공공성(公共性)과 공개성(公開性)을 부각하며 대중친화적인 박물관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아울러 자연과학의 발달, 인류의 기원에 관한 생물학, 인류학, 고고학 등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그에 발맞추어 박물관의 건립이 급진적으로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렀다.¹⁰⁾

한국에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박물관 초기의 싹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가지만,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헌상의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고려·조선시대에 박물관과 비슷한 보고가 더러 있기는 하였으나, 여러 차례의 병화(兵火)와 재난(災難)으로 소실되어 버렸다. 우리나라에서 박물관이라는 정식 명칭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08년 9월에 창설되어 1909년 11월에 공개된 창덕궁박물관부터다. 1910년에 이 박물관은 창경궁으로 이전하여 이왕가박물관으로 불렸고, 1938년 현재의 덕수궁 석조전 옆으로 옮겨 미술품을 중심으로 진열하는 이왕가미술관으로 개칭되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¹¹⁾ 미술관으로서의 개칭은 1915년에 총독부가 경복궁에 설립한 총

8) 이보아(2003), 전게서, <http://www.moca.go.kr/lecture.htm>

9) 이인범(1998), 「미술관 제도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p.31.

10) 이보아(2003), 전게서, <http://www.moca.go.kr/lecture.htm>

11) 어혜영(2004), 「사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과 사회적 효과에 관한 조사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2.

독부박물관과의 유사성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왕가미술관은 초기에 주로 고려자기와 삼국시대 이래의 불교 공예품, 조선 시대의 회화·역사·풍속자료·도자기 등을 수집·공개하였으며, 총독부박물관은 고적조사 사업에 의해 수집된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를 하였고 이는 이후 한국 고고학의 중추적 구실을 하였다.

“해방 이후 이왕가미술관은 덕수궁 미술관으로, 총독부 박물관은 국립 중앙박물관으로 양립되었다가 1969년 덕수궁 미술관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흡수 되었으며, 현대 미술의 수집 및 전시를 위해 최초의 국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으로 1969년 10월에 개관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두 번의 이전을 거쳐 1986년 8월 25일 과천에 준공하였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 10월 28일 용산에서 새롭게 개관하였다.”¹²⁾

“제주도에는 1964년 6월 22일에 제주민속박물관이 사설로 개관”¹³⁾ 하였으며, 그 후 제주대학교박물관이 “1967년 3월 20일에 민속박물관을 설치하여 1985년 6월 3일에 박물관으로 개편되었다.”¹⁴⁾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 1984년에 공립으로 개관 하였으며 중문민속박물관, 신천지 미술관, 제주교육박물관, 서귀포시 기당미술관, 신영제주영화박물관 등이 속속 개관하기 시작하여, 2000년도 이후 제주지역에는 30여개가 넘는 박물관이 생겨났다.

3) 박물관의 구성

박물관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는 ‘박물관 이용자’, ‘박물관 공간’, ‘박물관 자원’이라는 3개 인자로 집약되어지는데 각 박물관의 독자적인 조직구조는 이들 인자간의 상호관련성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박물관의 기본요소 중 ‘박물관 이용자’는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이라는 좁은 의미를 넘어서서 박물관을 접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가리키는 상당히 포괄적인 범주이다. 현대의 박물관이 제 역할을 하려면 우선 박물관의 수적인 증가와 현대적인 운영방식 도입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박물관 이용객이 많아야 한다.¹⁵⁾

12) 김윤경(1991),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 교육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2-13.

13) 제주도 관광진흥과(2003), 「제주관광 매뉴얼 jeju」, p.175.

14) <http://museum.cheju.ac.kr>

15) 배진희(2004), 「문화관광자원의 결합을 통한 지역박물관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8-9.

박물관은 이용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박물관 경영에 반영하여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둘째 항목인 ‘박물관 공간’은 “박물관 공간의 핵심이 되는 내부의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박물관 내부의 새로운 기능을 갖는 공간, 박물관 바깥의 외부 공간, 그리고 지리적 영역을 넘어서는 매체상의 공간까지 포함하는 광의(廣義)의 개념이다.”¹⁶⁾

박물관을 단지 전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의미있고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박물관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하나의 기능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여러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여러 기능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축되어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구성이 되어야 한다.

셋째 항목인 ‘박물관 자원’ 즉, 전시물은 오늘날의 박물관들이 전시물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범주를 가질 수 있는 항목이다.

“박물관은 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자료관과 공중에 알리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관으로 구분 되며, 전시내용에 따라 인문계 박물관과 자연계 박물관으로 나뉜다.”¹⁷⁾ 인문계는 미술계 박물관과 역사계 박물관으로 다시 나뉘고, 자연계는 자연사 박물관과 이공계 박물관으로 나뉜다.

박물관의 종류를 그것이 수용하고 있는 전시물들에 따라 <표1> 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16) 서인석(2006), 「지역박물관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6.

17) 배진희(2004), 전제서, p.11.

〈표1〉 전시자료의 종류에 따른 분류18)

구 분	내용의 특징	분 류		
자연과학계 박물관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물 변천에 관한 자료	자연사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지질박물관
				동물박물관
				식물박물관
	과학기술의 기본 원리나 역사에 관한 자료		사육재배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과학기술의 최신 성과를 나타낸 자료	이공계박물관	이공계 박물관	기초과학박물관
				응용과학박물관
				산업박물관
천문박물관			우주박물관	
인문과학계 박물관	인간의 생활과 문화에 관한 자료	미술계박물관	미술관	고미술박물관
				서양미술박물관
				근대미술박물관
	역사계박물관	역사박물관	역사박물관	
			민속학박물관	
			고고학박물관	

18) 송동근, 배진희 자료 논자 재작성

2. 지역문화에서 박물관의 역할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 가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박물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지역의 문화와 박물관의 역할을 정리하였다.

1) 지역문화의 개념

“지역문화란 지역과 문화의 합성어로 공통적인 요소로 연결된 일정한 공간의 생활양식 전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란 지역에서 향유하고 있는 문화, 즉 지역의 전통문화, 지역민의 생활문화, 미래의 창조문화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한편 특정한 지역의 외부지역과 구분되듯이, 특정한 지역문화 역시 지역적 독자성과 개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문화는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을 특정 짓는 관습 덩어리인 것이다. 즉 지역문화라 하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보, 보물, 혹은 지방문화재만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협의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지역문화를 지역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생활양식의 전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⁹⁾ 이러한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을 문화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인간의 정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 혹은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된 공간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전경수는 “문화는 상징행위, 전 인류의 기억,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풍습 및 기타의 기능, 관습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전체,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의미 가치규범의 전부와 이러한 의미들을 객관화하고 사회화하여 전달하는 매체의 전부라고 정의할 수 있다²⁰⁾”고 하였다. 이렇게 정의 내린다면 학문, 예술, 종교, 법률, 정치 등의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을 문화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협의(狹義)의 문화공간은 주로 전시, 공연 등의 예술, 그리고 역사, 전통과 관련된 공간을 의미한다.²¹⁾

19) 심응섭(2005), 「한국의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8-9.

20) 전경수(1998), 「문화의 이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10.

21) 서인석(2007), 「지역박물관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5.

우리나라에서의 문화공간은 일반적으로 문화관광부 기준으로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박물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전시시설로 분류된다.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을 다음 <표2> 로 정리하였다.

<표2> 문화공간 분류²²⁾

분 류		내 용
공연시설	종합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연주회·연극·오페라·무용·뮤지컬 등의 공연예술과 전시·행사 및 강연 등을 치를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 · 객석규모 1,200석 내외의 대규모 공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문화회관, 시·도의 종합문예회관 - 특별시, 광역시의 시민회관 등
	일반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무용·연주 등 순수공연예술만을 주로 치르는 공연장 · 객석규모 300석 이상의 중규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의 문화예술회관 등
	소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를 상시 상영하여 관객이 볼 수 있도록 설비한 상설의 건조물
전시시설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류, 역사, 고고,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인의 문화교육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박물관, 대학박물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8조(명칭의 사용 금지)에 의해 등록된 공·사립 박물관

22) <http://www.culturenet.or.kr//culturenet/jsp/html>

분 류		내 용
전시시설	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으로서 서화, 조각, 공예,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국립박물관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 18조(명칭의 사용 금지)에 의해 등록된 공·사립 미술관
	전시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8조(명칭의 사용 금지)에 의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전시시설
	화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작품(회화, 서예, 사진, 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 및 매매하는 시설 (상설·비상설 전시공간을 포함)
지역문화 복지시설	시·군·구 민 회관	· 각 시·군·구에 있어서의 문화적 행사를 비롯하여 세미나,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상의 사업추진 등 복합적 용도로 이용되는 공공시설
	문화의 집	· 지역주민이 기초생활권역 내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 예술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복합 문화공간
	복지회관	·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각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청소년시설	·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사회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분 류		내 용
문화보급 전수시설	문화원	· 전국의 시·군·자치구에 설립되어 있으며 각종 문화강좌 운영·문화행사 개최·향토자료 수집·보존 등 지역문화활동의 구심체역할을 수행
	국악원	· 전통국악의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전수시설
	전수회관	·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보급하기 위한 교육 및 전수를 할 수 있는 시설
도서관	국립도서관	·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 국회가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국회도서관)
	공공도서관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운영으로 일반 이용자에게 소장 자료를 공개적으로 열람시키는 도서관
	학교도서관	· 초·중·고교의 학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대학도서관	·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 부설된 도서관 · 학생, 교직원, 졸업생의 조사 연구에 이용됨
	전문특수 도서관	· 의학도서관, 점자도서관, 음악 도서관 등 · 도서관원이 학습문헌의 초록을 만들기도 하고, 외국문헌을 번역하기도 하며 전문적인 문헌목록, 색인을 만들어 서비스하기도 함

2) 지역박물관의 역할

지역박물관은 중앙의 박물관과는 다르게 작품이나 유물을 소장하고 전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관람하는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위한 것이며, 가장 짧은 시간에 그 나라 또는 그 지역의 문화와 사회 그리고 역사를 함축적이고 생생하고 활력 있게 보여주는 곳이다.

“지역박물관은 전문박물관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전시대상을 지역의 독특한 문화유산에 둔 이를테면, ‘향토(민속)박물관’으로 이해될 수 있다. 때문에 주목하는 것은 특정지역에서만 전승된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지역박물관은 지역연구 ‘실천의 장’이며 지역문화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이다.”²³⁾

“모든 박물관들은 시대적이며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면서 변화해 간다. 지역의 박물관들 역시 박물관의 건립목적과 콘텐츠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연과 인문·지리적 특성, 사회적인 관계와 문화적인 경향을 수용하면서 그 박물관만의 고유한 특성을 만들어가야 한다.”²⁴⁾

박물관의 특성화를 통해 지역과 박물관의 가치를 높여, 지역의 문화,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박물관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그 지역의 유물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지역민들에게 그들의 정체성(正體性)과 지역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공간이다. 지역박물관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을 박물관으로 찾아오게끔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속의 공간으로 느껴지게끔 일상적인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 지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부담 없이 찾아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지역박물관은 소수의 전공 학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다.

지역의 박물관은 현지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현재의 관심사가 되기 어려운 현대의 물품들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전통문

23) 전경수(1999),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대학교출판부, p.197.

24) 최춘일(2005), 「지역특성화 전략을 위한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73.

화 자료가 되는 만큼 현대의 물품을 충분히 수집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 규모와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이를 잘 실천한 곳으로 세계 최대의 박물관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미국의 스미소니언(Smithsonian)박물관을 들 수 있는데, 세계적인 규모의 건축물과 1억 3700여점의 방대한 소장품을 가지고서 지난해 방문객만 2,300만명에 이르는 곳이다. 이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주변의 것들도 모아놓으면 소중한 유물이 될 수 있음을 일찍이 깨달아, 많은 이들에게 유물의 숨은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짐으로써 얻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지역의 박물관은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서 존재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며, 지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한 생활의 공간이며, 교육적인 공간이기를 자청해야 한다.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내 박물관이 활성화되면, 지역 관람객들은 물론 외부의 잠재적 관람객들을 위한 공간으로써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주도내 박물관 현황

제주도내 박물관 현황 정리에 앞서 우리나라 박물관·미술관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등록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제주도내 박물관 현황을 관리주체별, 지역별, 테마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우리나라 박물관 등록 현황

우리나라 박물관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등록 박물관은 국립·공립 155개, 사립 169개, 대학 107개로 총 431개이며, 미술관은 국립·공립 24개, 사립 75개, 대학 4개로 총 103개이다.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을 합한 수가 534개소에 달하고 있다.

〈표3〉 우리나라 박물관 현황²⁵⁾

(문화관광부, 2006. 12. 31)

시·도	박물관								
	계	박물관				미술관			
		소계	공공	사립	대학	소계	공공	사립	대학
계	534	431	155	169	107	103	24	75	4
서울	122	91	13	49	29	31	3	26	2
부산	18	15	6	0	9	3	1	1	1
대구	7	7	1	3	3	0	0	0	0
인천	6	3	1	1	1	3	1	2	0
광주	10	6	3	0	3	4	1	2	1
대전	19	16	3	6	7	3	1	2	0
울산	2	2	1	0	1	0	0	0	0
경기	109	86	31	43	12	23	4	19	0
강원	33	29	15	8	6	4	1	3	0
충북	28	23	9	6	8	5	2	3	0
충남	34	30	14	12	4	4	0	4	0
전북	24	21	11	4	6	3	2	1	0
전남	20	13	7	4	2	7	2	5	0
경북	39	35	18	6	11	4	1	3	0
경남	39	34	18	12	4	5	3	2	0
제주	24	20	4	15	1	4	2	2	0

25) 문화관광부(2007),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p3.

우리나라의 534개 박물관·미술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2개(박물관 91개, 미술관 31개), 부산 18개(박물관 15개, 미술관 3개), 대구 7개(박물관 7개), 인천 6개(박물관 3개, 미술관 3개), 광주 10개(박물관 6개, 미술관 4개), 대전 19개(박물관 16개, 미술관 3개), 울산 2개(박물관 2개), 경기 109개(박물관 86개, 미술관 23개), 강원 33개(박물관 29개, 미술관 4개), 충북 28개(박물관 23개, 미술관 5개), 충남 34개(박물관 30개, 미술관 4개), 전북 24개(박물관 21개, 미술관 3개), 전남 20개(박물관 13개, 미술관 7개), 경북 39개(박물관 35개, 미술관 4개), 경남 39개(박물관 34개, 미술관 5개), 제주 24개(박물관 20개, 미술관 4개)의 박물관·미술관이 분포되어 있다.

2) 제주도내 박물관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 박물관을 <표4> 제주도내 관리주체별 박물관 현황을 통해 살펴보면, 국립은 2개, 공립은 19개, 사립은 53개소로 나누어지며 총 74개의 박물관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등록을 마친 박물관 36개를 <표5> 와 같이 등록사항과 함께 정리하였다.

<표4> 제주도내 관리주체별 박물관 현황

구분	박물관등록		개소
	등록	미등록	
국립	2	-	2
공립	7	12	19
사립	27	26	53
계	36	38	74

<표5> 제주도내 박물관 등록현황²⁶⁾

번호	명 칭	소 재 지	설립자 (대표자)	규 모(m ²)	소장 자료	등록일
1	국립 제주박물관	제주시 건입동 261	문화관광부	부 지:55,579 연면적:9,287	2,915	'01.6.15
2	중문 휴관 민속박물관	서귀포시 중문동 2563-1	중문관광어촌 김충길	부 지:4,320 연면적:1,015	민구류등 3,084	'92.10.17
3	제주 민속박물관	제주시 삼양동 2505	진성기	부 지:2,959 연면적:491	민구류 등	'92.11.23
4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제주시 일도2동 996-1	제주 도지사	부 지:31,515 연면적:5,947	고고, 민속류 33,976	'84.12.13
5	제주 교육박물관	제주시 이도2동 539-14	제주도 교육감	부 지:5,809 연면적:3,741	교육자료 23,748	'95.9.13
6	서귀포시 기당미술관	서귀포시 서홍동 621	서귀포 시장	부 지:5,092 연면적:738	회화604	'97.06.04
7	신영제주 영화박물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81	(주)한국홍산 신영균	부 지:81,790 연면적:3,159	장비,스틸 원본등1,580	'98.04.06
8	서귀포 이승만 자료관	서귀포시 토평동 511	(주)파라 다이스 김한기	부 지:15,000 연면적:949	사진,서 적등147	'00.12.30
9	제주민속촌 박물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1	한국항공(주) 강대홍	부 지:156,503 연면적:6,838	고서적, 민속자료 등8,187	'01.04.13
10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시 아라동 1	제주대학교 총장	부지:1,444,740 연면적:477	민속자료 5,521	'01.07.28
11	곰완구 전시관	서귀포시 색달동 2889	(주)제이에스 김묘숙	부 지:13,555 연면적:4,030	곰인형 1,356	'01.07.28
12	설록차 전시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235-3	서경배 (지현상)	부 지:8,100 연면적:1,564	토기,자기 류등150	'01.12.28
13	서귀포시립 이중섭미술관	서귀포시 서귀동 532-1	서귀포 시장	부 지:3,478 연면적:586	미술품 134	'03.07.29

2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과에서 제공받은 자료(2007년 9월)를 기준으로 작성.

번호	명칭	소재지	설립자 (대표자)	규모(m ²)	소장 자료	등록일
14	평화박물관	서귀포시 한경면 청수리 847	이영근	부지:9,038 연면적:929	사진,군 대용품 311	'04.05.12
15	아프리카 박물관	서귀포시 대포동 1833	한중훈	부지:8,246 연면적:3,741	공예품등 450	'05.02.25
16	금오당 미술관	제주시 연동 252-20	권용수	부지:1,040 연면적:298	전적,회 화등103	'05.02.25
17	서귀포 감굴박물관	서귀포시 신희동 산1	서귀포 시장	부지:27,243 연면적:4,786	민구류, 감굴류 등254	'05.02.25
18	소리섬 박물관	서귀포시 색달동 2864-36	(주)밀리언키 (황영준)	부지:13,223 연면적:	악기류등 443	'05.11.11
19	방림원 식물원	서귀포시 한경면 저지리 2120-91	방한숙	부지:9,917 연면적:1,040	식물류등 345	'05.11.11
20	김영갑갤러 리두모악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437-5	박훈일	부지:8,651 연면적:904	사진,필름, 조각품등	'06.02.24
21	세계미니어 처전시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56-1	(주)마나미 랜드(박경임)	부지:47,663 연면적4,786	조형물등	'06.02.24
22	여미지 식물원	서귀포시 색달동 2484-1	남상규 (손일호외1)	부지:112,397 연면적:15,514	식물류 등	'06.03.27
23	생각하는정원 (구.분재예술원)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534	(주)청원 성지연	부지:36,114 연면적:248	식물류 등	'06.03.27
24	제주건강과 성박물관	제주시 안덕면 감산리 1736	(주)에스메카 (류기호)	부지:25,564 연면적:1,076	도기류등	'06.05.08
25	제주 돌박물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19	제주도	부지:969,731 연면적:9,904	화산암 등	'06.05.08
26	일출랜드 식물원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010	강재업	부지:97,496 연면적:304.5	식물류등	'07.01.15

번호	명 칭	소 재 지	설립자 (대표자)	규 모(m ²)	소장 자료	등록일
27	자연사랑 미술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920	서재철	부 지:13,815 연면적:1,600	사진류등	'07.01.15
28	소인국테마 파크전시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725	진동열	부 지:49,644 연면적:1,217	조형물등	'07.04.02
29	러브랜드 미술관	제주시 연동 680-26	최은주	부 지:29,950 연면적:1,356	조각품등	'07.04.02
30	제주 현대미술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63 외3필지	제주 특별자치 도지사	부 지:8,663 연면적:2,087	미술품 277	'07.07.13
31	제주공룡원 전시장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2677-1	박명욱	부 지:90,571 연면적:1,103.73	화석등 210	'07.07.13
32	닥종이인형 전시관	서귀포시 법환동 914번지	오유신	부 지:1,305 연면적:864.32	공예품 등 167	'07.07.13
33	돌하르방 공원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76	김남홍	부 지:14,876 야외전시8,264	돌하르방 156	'07.08.30
34	도깨비공원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089-1	이기후 (강혜경)	부 지:27,037 야외전시17,392	조형물 927	'07.08.30
35	제주 조각공원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산27번지	이은범 (이경률)	부 지:412,286 야외전시214,800	조각품등 300점	'07.08.30
36	석부작 테마공원	서귀포시 호근동 569-2번지	민명원	부 지:18,469 야외전시12,775	석부작등 500점	'07.08.30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박물관 현황을 살펴보았다. 등록 박물관을 미술관과 구분하여 다시 지역별로 세분화 해보면, <표6>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제주 시 지역에 16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서귀포시 지역에는 20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국립박물관과 공립 박물관·미술관은 제주시 지역에 6개소, 서귀포시 지역에 3개소가 있으며, 사립박물관(미술관, 전시관, 자료관, 식물원 포함)은 제주시 지역에 10개소, 서귀포시 지역에는 17개소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6〉 제주도내 박물관 지역별 현황

구 분	제 주 시	계	서 귀 포 시	계	총 계
국립박물관	▪ 국립제주박물관	1			1
교육박물관	▪ 제주대학교박물관	1			1
공립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돌박물관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3	▪ 서귀포감귤박물관	1	4
공립미술관	▪ 제주현대미술관	1	▪ 서귀포시기당미술관 ▪ 서귀포시립 이중섭미술관	2	3
사립박물관	▪ 제주민속박물관 ▪ 평화박물관	2	▪ 중문민속박물관 ▪ 아프리카박물관 ▪ 소리섬박물관 ▪ 신영제주영화박물관 ▪ 제주민속촌박물관 ▪ 제주건강과성박물관	6	8
사립미술관	▪ 금오당미술관 ▪ 러브랜드미술관 ▪ 북촌돌하르방공원	3	▪ 김영갑갤러리 ▪ 자연사랑미술관 ▪ 제주조각공원	3	6
전 시 관, 자 료 관	▪ 세계미니어쳐전시관 ▪ 제주공룡원 ▪ 도깨비공원	3	▪ 이승만자료전시관 ▪ 곰완구전시관 ▪ 설록차전시관 ▪ 소인국테마파크 ▪ 닥종이 인형전시관 ▪ 석부작 테마공원	6	9
식 물 원	▪ 방림원 식물원 ▪ 생각하는정원(구.분재예술원)	2	▪ 여미지식물원 ▪ 일출랜드식물원	2	4
계	16		20		36

위에서 제주도내 박물관 현황을 관리주체와, 등록·미등록으로 구분하여 보고, 지역별로 파악해 보았는데, 국립, 공립, 사립의 구분과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제주지역 박물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전시자료를 가지고서 테마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종합, 역사, 민속, 교육, 미술, 음악, 영화, 자연, 건강테마로 나눌 수 있는데 각 테마별로 <표7> 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7> 제주도내 테마별 박물관 현황

구 분	등록 박물관	미등록 박물관	계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제주박물관 ▪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3
역사테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박물관 ▪ 서귀포이승만기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양동선사유적지 ▪ 목관아지 ▪ 향목유적지 ▪ 산지천중국피난선 ▪ 항일기념관 ▪ 서북전시관 ▪ 하멜상선전시관 ▪ 제주국제평화센터 ▪ 추사적거지전시관 	11
민속테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민속박물관 ▪ 제주민속촌박물관 ▪ 중문민속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녀박물관 ▪ 우도박물관 ▪ 바다박물관 	6
교육테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교육박물관 		1
음악테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섬 박물관 		1
영화테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영제주영화박물관 		1

구 분	등록 박물관	미등록 박물관	계
자연테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돌문화공원 ▪ 감귤박물관 ▪ 일출랜드 ▪ 여미지식물원 ▪ 생각하는정원(구.분재예술원) ▪ 방림원 ▪ 석부작테마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림공원 ▪ 감귤판매전시관 ▪ 제주허브동산 ▪ 나비레전시관 ▪ 성산포조가비박물관 ▪ 돌문화마을 ▪ 수컷돌거북이박물관 ▪ 우양수석박물관 	15
미술테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기당미술관 ▪ 서귀포시립이중섭미술관 ▪ 제주현대미술관 ▪ 제주금오당미술관 ▪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 자연사랑 갤러리 ▪ 제주테디베어뮤지엄 ▪ 세계미니어쳐전시관 ▪ 아프리카 박물관 ▪ 북촌돌하르방공원 ▪ 제주조각공원 ▪ 러브랜드 ▪ 닥종이인형박물관 ▪ 도깨비공원 ▪ 석부작테마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찰나갤러리 등 갤러리(15) ▪ 금릉식물원 	31
건강테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록차 뮤지엄 오설록 ▪ 건강과 성 교육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구박물관 ▪ 초콜릿박물관 ▪ 세계성박물관 	5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지역에는 74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앞으로 계획, 진행 중인 박물관을 포함하면 80여개가 넘는 박물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국립제주박물관과 국립제주대학박물관을 제외한, 공립박물관은 19개, 사립박

물관은 53개소로 나누어지며 이중 36개의 박물관·미술관이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시에 16개, 서귀포시에 20개소가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 박물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전시자료를 테마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종합(3), 역사테마(11), 민속테마(6), 교육테마(1), 미술테마(31), 음악테마(1), 영화테마(1), 자연테마(15), 건강테마(5)로 나눌 수 있는데, 제주지역에는 자연테마와 미술테마가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제주고유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박물관이 많이 생겨나야 할 것이다.

4. 지역문화 중심지로서의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도는 지질학적 특성에 의해 육지부와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제주 사람들의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돌과 제주문화에 대해서 논하고 제주의 돌문화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개원한 제주돌문화공원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1) 돌과 제주문화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신화, 전설, 민요, 종교 등 인간의 정신적 활동으로 나타나는 정신문화와 인간이 자연 환경에 적응하며 살기 위하여 물질을 바탕으로 이루어 놓은 도구, 건조물, 교통, 통신 등의 물질문화가 그것이다.”²⁷⁾

제주도는 화산섬이라는 독특한 지정학적 특성과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제주의 문화는 제주사람들이 삶 속에 녹아있는 생활의 반영(反映)으로 돌문화가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를 하지고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 물품, 건조물 등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 모든 것을 돌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제주사람들은 인생은 ‘돌로 시작해 돌로 끝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로 만들어진 집에서 태어나 돌을 이용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주변의 모든 것

27) 이윤형, 고평민(2006), 「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p.132.

들도 돌로 구성된 생활 속에서 살아간다. 죽어서도 산담이 둘러진 무덤으로 들어가고 무덤 앞에는 돌로 만든 상석(床石), 비석(碑石) 그리고 동자석(童子石)과 함께 한다.

“제주도 사람들이 돌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례는 의식주 전반에서 확인된다. 특히 돌을 재료로 삼아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 사례들이 흔하다. 의생활 도구로 다듬잇돌을 만들어서 썼음직 하나, 제주도에서는 다듬잇돌을 보기 어렵다.”²⁸⁾

제주도의 돌은 구멍이 숭숭 나 있어 다듬잇돌을 만드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은 ‘다듬잇돌(砧)에서 옷을 다듬지 않고 손으로 다듬는다(擣衣無砧 以手敲打)’고 하였다. 제주도에서는 두 아낙네가 천을 양쪽에서 마주잡고 앉아 밀고 당기며 옷감을 다듬었다. 더러 나무로 만든 다듬이 판 위에 올려놓고 다듬는 수도 있었다. 이런 판을 ‘안반’이라고 하였다. ‘안반’은 옷 다듬이질은 물론 떡가루를 편편하게 미는 판으로도 쓰였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안반’은 의생활과 식생활에서 두루 쓰였다.”²⁹⁾

“맷돌에 해당하는 ‘ㄱ레’는 가장 대표적인 식생활 도구이다. 비록 돌로 만든 것이기는 해도 ‘연자매’와 ‘절구통’은 나중에 유입된 것들이다. ‘돌화로’는 난방 용구로 쓰이기보다 제사에 쓸 적이나 묵을 굽는 취사 용구로 쓰였다. 난방용구로는 ‘붕덕’(부섭)이 있었다. 조명용구로는 ‘등경돌’(燈檠石)³⁰⁾이 쓰였다. 모두 한반도에는 없고 제주도에만 있는 독특한 것들이다.”³¹⁾

제주도 사람들은 이처럼 흔한 돌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줄 알았다. 집을 짓는 데도 돌을 이용하였으며, 집 울타리도 돌로 쌓았다. 부엌에서는 돌을 세워 슬덕을 만들고 불을 때었다. 그 뒤로 돌을 예들려 재를 모아두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부엌 앞에는 ‘물팡돌’을 두어 ‘물허벅’을 내려놓기 편하게 하였다.

외양간인 ‘쇠막’도 돌로 쌓아 지었다. 우마의 먹이 그릇인 ‘구시’도 돌로 만들었다. 돼지 우리이며 측간(廁間)이기도 한 돛통시도 온통 돌로 만들었다. 사람들이 디디고 앉아 변을 보는 ‘디딜팡’ 역시 돌로 만들었다.³²⁾ 돼지 먹이용 그릇

28) 제주돌문화공원 백서(2005), 「돌문화전시관 영상물」, p.3.

29) 이윤형, 고광민(2006), 전계서, pp.137-138.

30) 소나무의 송진이 많이 엉긴 소나무 조각인 판술을 두고 제주도에서는 ‘술각’이라고 한다. ‘술각’을 올려 놓고 불을 밝혔던 돌기둥이다.

31) 제주돌문화공원 백서(2005), 「돌문화전시관 영상물」, p.3.

32) 상계서, p.1.

을 ‘뚫도고리’라고 하였는데, 무거운 돌로 만들어 힘 좋은 돼지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마을 안길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길 양옆을 돌담으로 쌓아 놓은 것을 ‘올레’라고 한다. 그 곳에 문이 있거나, 아니면 구멍이 난 돌을 세운다. 앞의 것을 ‘올렛문’, 뒤의 것을 ‘주먹돌’, ‘정주먹’, ‘정주석’이라고 이른다. ‘주먹돌’은 주먹이 드나들 만큼 구멍을 뚫어 만든 돌이라는 말이다. 집안 식구들이 바깥일이 있어 나갈 때는 긴 막대기를 걸어놓고, 들어올 때 내려놓는다.”³³⁾ 집에 사람이 있고 없음을 막대기의 모양으로 전달하였는데 그 막대기를 ‘정낭’이라고 한다. ‘정낭’은 소나 말 등이 들이 닦쳐 말리기 위하여 널어놓은 곡식을 망쳐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생산이나 생업활동에도 돌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농사를 짓는 데는 ‘돌테’, ‘쇳돌’, ‘곰돌’ 등이 쓰였으며, 고기를 잡는 데는 ‘뗏돌’, ‘땃돌’과 같은 것이 쓰였다. ‘돌테’는 돌덩이를 길쭉한 원통형으로 만들어 구르게 한 것이다. 이를 마소로 하여금 끌게 하여 씨앗을 뿌린 밭을 다지는 데 쓴다. ‘쇳돌’은 탈곡을 하는 데 쓰던 것이다. 낱알이 달린 짚을 ‘쇳돌’에 내리쳐 탈곡하였다. ‘곰돌’은 소 길들이기를 위한 도구이다. 두 살이 되는 소에 멩에를 씌우고 쟁기 대신 곰돌을 끌게 하여 길들이기를 한다. ‘뗏돌’은 자리그물의 테두리인 예움에 달아맨 돌로 그물에 무게를 더하여 물 속으로 드리우기 쉽게 하는 것이다. ‘땃돌’은 돌로 만든 ‘땃’이다.”³⁴⁾

“무덤 주위에도 돌을 쌓아 담을 둘렀다. 육지부의 무덤양식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인 ‘산담’은 무덤 주위를 타원형으로 쌓거나 장방형으로 쌓은 돌담을 말한다. 타원형의 ‘산담’은 보통 돌을 구하기가 힘들 때 쌓는 형식으로 보통 외담으로 쌓는다. 후손들이 제대로 날짜를 잡아 ‘산담’을 조성할 경우에는 양쪽에 커다란 돌을 쌓은 후 그 사이에 작은 돌을 채워 넣는 겹담양식으로 만드는데 장방형으로 쌓는다.”³⁵⁾ 이때 ‘산담’ 한쪽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틈을 두어 비워둔다. 이를 신도(神道)라고 하는데 신이 드나드는 길목이라는 뜻이며,

33) 이윤형, 고헌민(2006), 「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p.158.

34) 제주돌문화공원 백서(2005), 전계서, p.4.

35) 강정효(2004), 「화산섬, 돌 이야기」, 각, pp.30-37.

시문(神門)이라는 신의 출입문을 만든다. 제삿날 자손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기 위해 후손의 집을 찾아올 때 망자가 출입하는 문이다. “산담은 곧 산 사람이 사는 세상과 귀신이 사는 무덤을 구분 짓는 상징적인 경계이기도 한 셈이다.”³⁶⁾ 그리고 소나 말의 침입을 막고, 주변에 들불을 붙일 때 불이 무덤주위에 번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다에서도 돌을 이용하였다. “바닷물이 들고나는 지점인 조간대에는 ‘원’이라 부르는 고기잡이 도구가 설치돼 있었다. 돌담을 에워 쌓아 만든 ‘원’은 밀물 때 들어온 고기를 가두었다가 썰물 때 잡는 장치다. 원담을 쌓는 방법은 안과 밖이 다르다. 바깥쪽은 비스듬하게 돌을 쌓아 고기가 쉽게 넘어 들어오도록 하고 안쪽에는 직선으로 돌을 쌓아 들어온 고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원담은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쌓았기 때문에, 원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했다.”³⁷⁾

목장에도 돌을 이용하여 필요한 곳에 울타리를 돌로 쌓았다. “계곡이나 ‘내’(川)가 이웃한 목장의 경계는 될지언정 울타리 구실까지 온전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 사이의 공간에도 한라산 쪽인 위쪽과 바다 쪽인 아래쪽에 울타리가 필요하다. 위쪽 담을 ‘상жат’이라 하고 아래쪽 담을 ‘하жат’이라고 하였다. ‘상жат’은 방목한 우마가 한라산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하жат’은 우마가 사람들이 사는 마을 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막는다. 고도와 절기에 따라 풀이 자라는 시기가 다르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상жат’과 ‘하жат’ 사이에 경계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그 경계에 역시 돌담을 쌓고 ‘중жат’이라고 하였다.”³⁸⁾

돌을 높이 쌓아올릴 필요가 있을 때 제주도에서라면 어디에서든 그다지 어려울 것이 없었다. “바닷가를 따라 세웠던 ‘환해장성’, 높은 오름에 있는 ‘봉수’(烽燧), 바닷가 언덕에 자리 잡은 ‘연대’(연대 등도 모두 돌을 쌓아 만들었다. 포구마다 등대 구실을 하는 ‘등명대’(燈明臺)를 세웠는데 이것도 돌을 높이 쌓아 만들었다. 방사탑에 해당하는 ‘거옥대’도 돌로 만들었다. ‘거옥대’는 마을 어느 한쪽이 흰히 트이면 이곳으로 사악한 기운이 들이친다 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쌓은 돌담을 말한다.”³⁹⁾

36) 제주돌문화공원 백서(2005), 전계서, p.2.

37) 제주도 관광진흥과(2003), 「제주관광 매뉴얼 jeju」, p.98.

38) 제주돌문화공원 백서(2005), 전계서, p.2.

39) 상계서, p.3.

“제주도 무속사회에서 제주도에는 1만8천 신(神)이 있다고 하였다. 신의 왕국이다. 제주도를 지키는 신을 비롯하여, 한 마을, 한 집안, 또 집안의 여러 칸살을 지키는 신이 있다. 신은 영적(靈的) 존재이기에 그 실체(實體)는 보기 어렵다. 자연석과 수목,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든 석상(石像)과 탑, 그리고 돌로 만든 신의 집들이 있다.”⁴⁰⁾

돌은 석상을 만드는 데도 쓰였다. 현무암은 세밀하게 다듬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각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는 돌하르방이다. 돌하르방은 현무암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 만들었다. 제주목·대정현·정의현 등 도읍의 성문 앞에 있었다. 현재 모두 47기가 남아 있다. 한편 무덤 앞에 두는 동자석, 일부 신당에서 모시는 돌미륵 등도 돌을 다듬어 만들었다.

돌의 쓰임새는 무한하였다. “향로(香爐), 저울추 등을 비롯한 각종 도구나 부속품도 돌로 만들어 썼다. 어른들은 마을 어귀에 둔 들음돌을 가지고 힘을 겨루었다. 별다른 장난감이 없던 어린이들도 돌맹이를 가지고 공깃돌, 고누 등을 하며 놀았다. 돌은 삶의 환경을 척박하게 한 주요인이었다. 그러나 제주도 사람들은 돌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내었다. 뿐만 아니라 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슬기롭게 살았다.”⁴¹⁾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제주사람들의 삶 속에 자리 잡은 돌문화는 정신적 활동으로 인한 산물로써 다양하고 독특한 제주만의 물질문화이다. 따라서 제주와 돌문화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돌문화가 곧 제주민의 생활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장 제주도적인 색채를 가지는 박물관을 만든다면 제주의 돌문화를 테마로 한 곳이라 생각되어지고, 다음에 살피게 될 제주돌문화공원이 지금까지 언급한 제주의 돌로 만든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유형의 문화유산과 돌을 소재로 한 정신문화를 집대성(集大成)하여 조성된 공간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제주만의 독특한 돌문화를 테마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제주돌문화공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40) 이윤형, 고광민(2006), 「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p.210.

41) 제주돌문화공원 백서(2005), 「돌문화전시관 영상물」, p.4.

2) 제주돌문화공원의 개요

제주돌문화공원은 제주의 형성과정과 제주민의 삶 속에 녹아 있는 돌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박물관이자 미술관이며 생태공원이다. 그리고 한라산 영실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전설을 중심 주제로 삼아 꾸며진 설화의 공간이다.

“제주돌문화공원은 민·관 공동작업으로, 탐라목석원이 수집한 1만4천 여 점의 자연석과 민속품들을 무상기증하고, 북제주군이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 숨쉬는 100만평의 부지를 내놓아 행정과 재정을 맡고, 탐라목석원은 디자인과 설치를 감독키로 협약이 체결되어 2006년 6월 3일 역사적인 개원을 하게 되었다.”⁴²⁾

제주돌문화공원의 전시는 크게 제주돌박물관과 야외전시로 구분되는데 제주돌박물관 내부에는 형성전시관, 돌갤러리가 있으며, 외부에는 돌문화전시관, 야외전시장, 전통초가(傳統草家)로 구분되어 있다.

“제주돌박물관 내에 위치한 제주형성전시관은 제주의 화산활동을 주제로 한 전시공간으로써 우주와 지구, 한반도의 지질, 제주의 화산활동, 오름, 동굴 등 9개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중앙부에는 장축 12m(축척 1:5,700)의 제주도 모형이 위치하고 있다.”⁴³⁾

돌갤러리는 화산섬 제주도의 손길로 빚어낸 기묘한 형태의 돌들을 아름답게 배치해 놓은 자연석 전시장이다. 화산활동에 의해 태어난 다양한 형태의 용암구와 화산탄을 전시해 놓았으며, 제주자연에 의해 빚어진 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추상적인 자연미를 한껏 맛볼 수 있는 공간이다.

제주돌박물관 외부에 위치해 있는 돌문화전시관은 제주의 초가형태의 전시관으로 내·외부 마감 또한 전통적인 제주초가 모습을 하고 있다. 돌문화전시관의 경우 각 주제별로 구분하여 의·식·주, 생산·생업, 놀이 등과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하였으며, 역사 속의 돌문화연표와 제주의 돌문화를 기능별로 나눠 정리한 도표가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역사 속의 제주돌문화와 일상생활 속에서 돌을 이용하며 살아온 제주인들의 지혜로운 생활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볼 수 있다.

42) 제주돌문화공원 총괄기획팀 자료제공

43) 제주돌문화공원 백서(2005), 「돌박물관 영상물 인용」

야외전시장은 선사시대의 돌문화를 시작으로,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돌문화가 시대 순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독특한 제주의 신앙, 동자석, 정주석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제주인들의 삶과 죽음, 신앙,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전시되어 있다.

“제주의 전통초가는 옛 마을을 본떠서 세거리집, 비석거리, 두거리집, 말방앗간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제주의 옛 선인들의 삶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소이다.”⁴⁴⁾

제주돌문화공원은 <표8> 와 같이 전시를 위한 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기반시설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이 시설들을 이용한 전체 동선별 1, 2, 3코스로 구분되어 관람객들의 관람을 유도하고 있다.

<표8> 제주돌문화공원 시설현황⁴⁵⁾

구 분	내 용
부지면적	969,731㎡(293,858평)
전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박물관 : 9,904.43㎡(2,996평) · 돌문화야외 전시관(8동) : 509㎡(154평) · 야외전시장 : 부지 약 38,000㎡(11,495평) · 전통초가(8동) : 부지 약 6,600㎡(1,996평), · 초가 9동 399.84㎡
관리시설	7동 385.6㎡ 매표소 90㎡, 수표소57.6㎡, 미아보호소 78㎡, 관리소 4동 160㎡
편의시설	27동 882.4㎡ 휴게소(운전기사휴게소, 매표소, 수표휴게소, 미아보호휴게소)4동270㎡
기반시설	원두막 16동 258㎡, 화장실 7동 354.4㎡ 주차장 5개소(대형63대, 소형 363대)

44) 제주돌문화공원 총괄기획팀 자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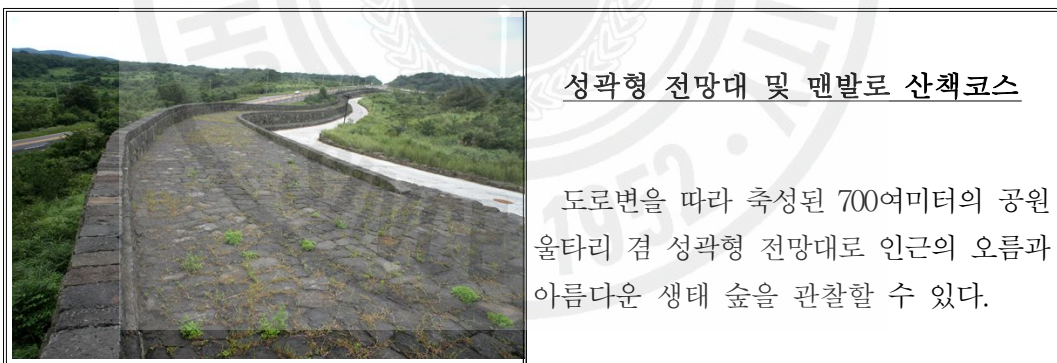
45) <http://www.jejustonepark.com/jejustonepark/html/sub05/sub05.htm>

공원에 들어서 처음 접하게 되는 ‘1코스’는 19계단~제주돌박물관까지이며 관람동선거리는 약 560m, 관람소요시간은 약 50분가량이다.

“매표를 하고 관람을 위한 첫발을 내딛으며 19계단을 지나면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을 주제로 한 전설의 통로, 위령탑(상징탑), 연못, 모자상 등 다양한 조형물을 만날 수 있다. 전설의 통로를 지나 숲길을 따라 내려가면 주변의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제주돌박물관이 위치한다. 제주돌박물관의 옥상은 야외무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박물관 내부에는 제주의 형성과정과 다양한 화산활동을 소개하는 제주형성전시관이 있다. 그리고 여러 번의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하고 진귀한 자연석을 감상할 수 있는 돌깎러리로 구성되어 있다.”⁴⁶⁾

‘1코스’의 주요 요소들을 <그림1> ~ <그림5> 로 관람 동선별로 정리하였으며, ‘2코스’는 <그림6> ~ <그림10> 으로, ‘3코스’는 <그림11> 로 정리하였다 .⁴⁷⁾

<그림1> 성곽형전망대 및 맨발로 산책코스



46) http://jejustonepark.com/jejustonepark/html/sub02/sub01_01.htm

47) 그림자료 제주돌문화공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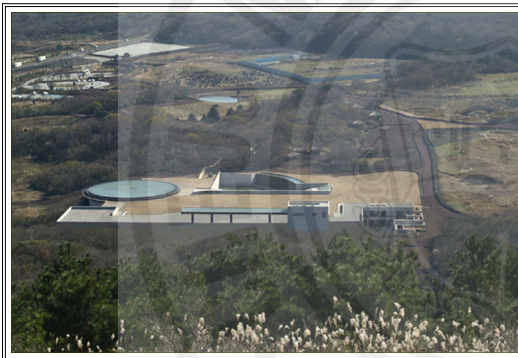
〈그림2〉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위령탑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상징탑(위령탑)

돌문화공원의 핵심테마인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전설을 형상화하기 위한 작업 중의 하나이다. 탑 앞에는 제단과 무대로써 활용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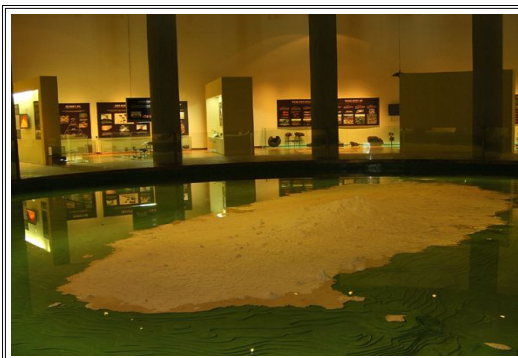
〈그림3〉 돌박물관



제주돌박물관

지하 2층, 지상1층의 건물이다. 박물관 건물 위에는 수상무대인 하늘연못(Sky Pond)과 진입부 4단의 벽체를 타고 흐르는 벽천계류, 야외무대 등이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건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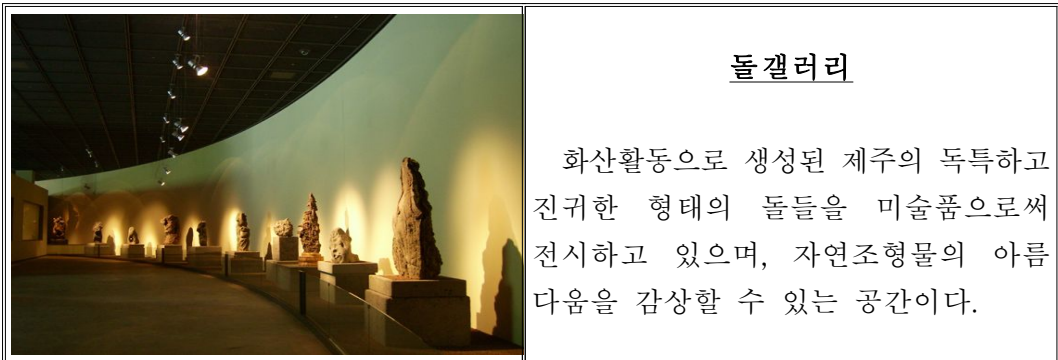
〈그림4〉 제주형성전시관



제주형성전시관

제주의 화산활동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우주와 지구, 한반도의 지질, 제주의 화산분출물, 오름과 동굴 등 9개의 주제를 교육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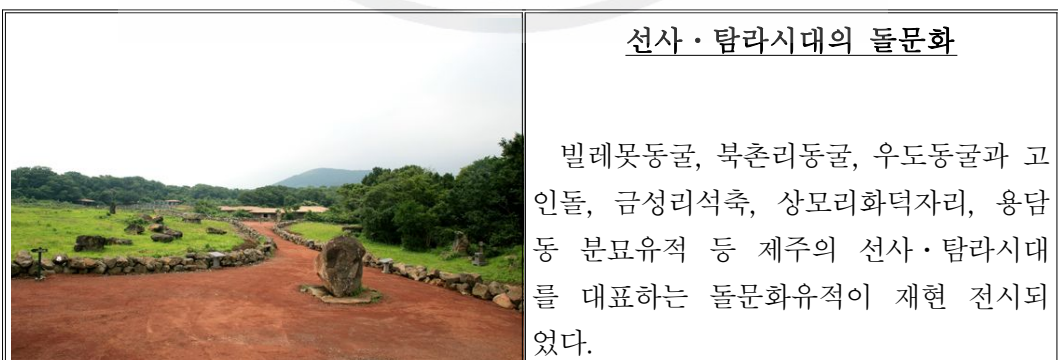
〈그림5〉 돌갤러리



‘2코스’는 제주돌박물관을 나와 하늘로 향한 계단을 오르면서 시작하는 선사시대의 돌문화 부터~돌문화야외전시장 까지이며 관람동선거리는 약 970m, 관람소요시간은 약 50분가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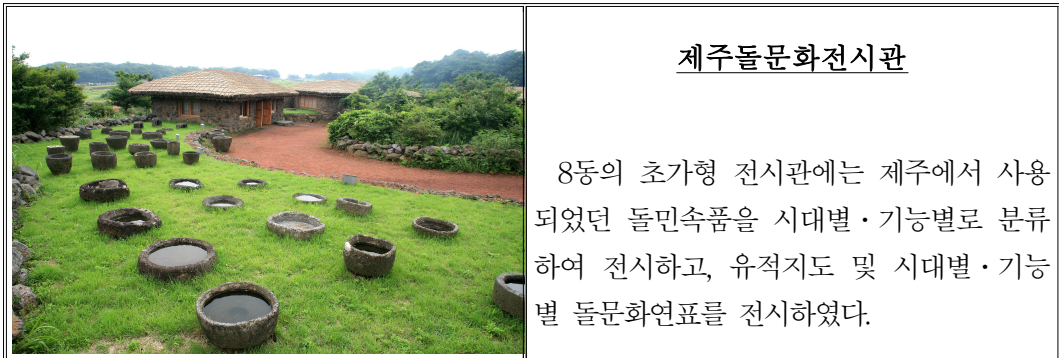
“선사시대의 돌문화를 시작으로 초가형 돌문화전시관 8동,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돌문화, 제주의 신앙, 동자석, 돌하르방, 정주석 등의 전시로 구성되어 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의 돌문화를 포함한 야외전시공간에는 제주인들의 삶과 죽음, 신앙,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전시되어 있으며, 돌문화전시관 8동에는 제주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해 온 돌 도구 등 유물이 기능별로 분류 전시되어 있다.”⁴⁸⁾

〈그림6〉 선사·탐라시대의 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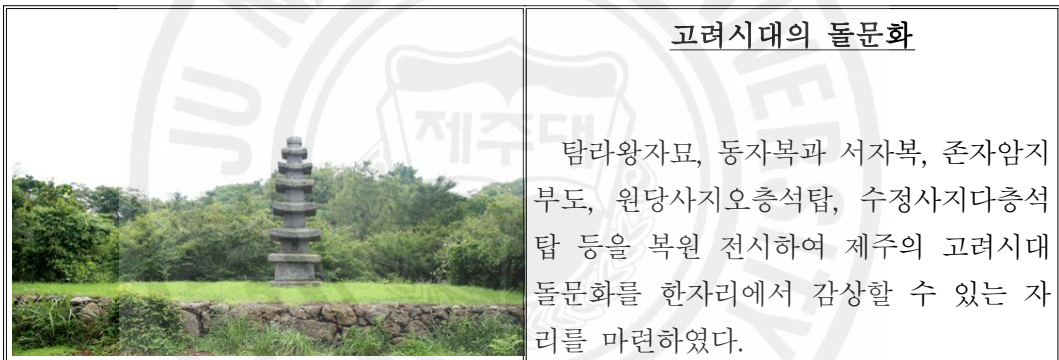


48) http://jejustonepark.com/jejustonepark/html/sub02/sub01_02.htm

〈그림7〉 제주돌문화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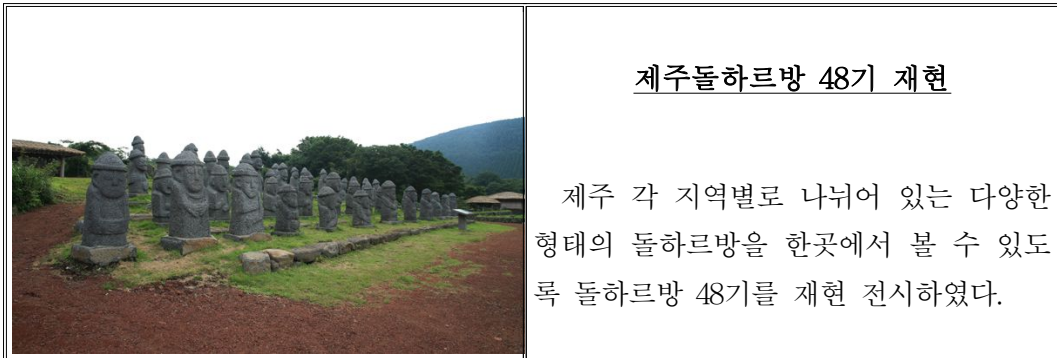
〈그림8〉 고려시대의 돌문화



〈그림9〉 조선시대의 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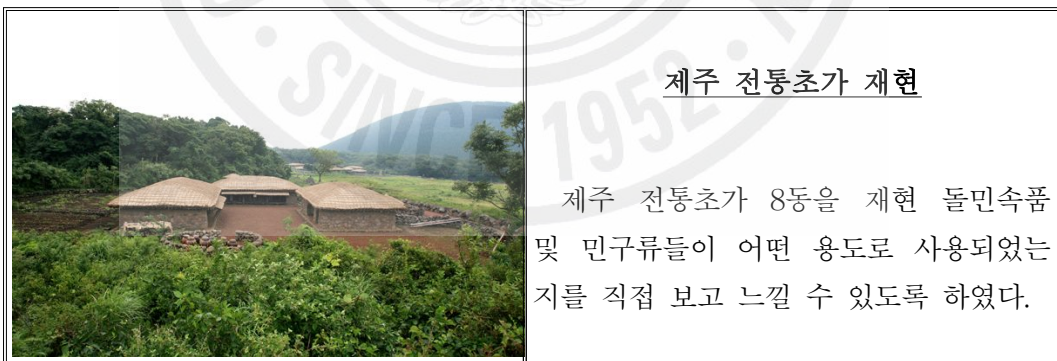
〈그림10〉 제주돌하르방 48기 재현



‘3코스’는 제주전통초가를 중심으로 마을형태의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람 동선거리는 약 780m, 관람소요시간은 약 50분가량이다.

“제주의 옛 마을을 본떠서 만든 세거리집, 비석거리, 두거리집, 말방앗간,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린 제주의 전통초가를 재현하였으며, 옛 사람들의 삶을 재구성해 놓아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졌다.”⁴⁹⁾

〈그림11〉 제주 전통초가 재현



49) http://jejustonepark.com/jejustonepark/html/sub02/sub01_03.htm

3) 전시자료 확보 현황

제주돌문화공원에는 현재 15,000여점의 소장 자료가 있다. 소장되어있는 자료의 대부분은 탐라목석원에서 무상으로 기증한 자료들로써, <표9> 전시자료 확보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석 4,240점, 돌민속품 5,355점, 민구류 4,753점과 기타 93점 등 14,441점의 귀중한 전시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다. 또한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자연석 267점, 돌민속품 5점, 민구류 299점, 기타 201점 등 총 772점을 무상기증 받아 현재까지 총 15,213점의 귀중한 전시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표9> 전시자료 확보현황⁵⁰⁾

(2006년 2월 기준)

구 분	계	자 연 석	돌민속품	민 구 류	기 타
탐라목석원 기증	14,441	4,240	5,355	4,753	93
일반 기증	772	267	5	299	201
총 계	15,213	4,507	5,360	5,052	29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시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물관 건물을 지어놓고 전시물을 수집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 현실과는 달리 제주돌문화공원에는 많은 양의 전시자료가 확보 되어있다. 전시자료가 충분하다는 것은 다양한 패턴의 전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으로 체계적인 기획·관리를 통해 기수집된 전시자료와 앞으로 수집할 전시자료들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50) 제주돌문화공원 총괄기획팀 자료제공

III. 박물관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1. 박물관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현재 제주도에에는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수의 박물관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문화시설로서의 역할과 함께 지역의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며 지역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많은 수의, 그리고 다양한 테마의 박물관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자연은 한시적인 즐거움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앞으로 더욱 가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제주도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물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는 지역문화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지역문화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내 박물관은 국립박물관, 사립박물관이라는 구분 없이 모두가 공공(公共)의 자산이며 공공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의 박물관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로 전문인력의 확보, 둘째로 박물관 지원제도의 개선, 셋째로 공동브랜드 네트워크 마케팅의 도입, 넷째로 전시패턴의 다양화,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제도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1) 전문인력의 확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36개의 등록 박물관과 38개의 미등록 박물관 등 총 74개의 박물관이 존재한다. 국립은 2개, 공립은 19개, 사립은 53개소가 있다.”⁵¹⁾ 현재 19개의 도내 공립박물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운영·관리되고 있다. 목관아지, 삼양동선사유적지, 향몽유적지, 산지천중

5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과 자료 제공(2007년 9월)

국피난선, 서북전시관, 하멜상선전시관, 항일기념관, 제주돌문화공원, 제주현대미술관, 서귀포시 기당미술관, 서귀포시립 이중섭미술관 등 이들 박물관들은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임에 분명하다. 해당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가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그나마 이러한 현실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각 박물관에 배치된 학예사(學藝士)인데 이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8명의 학예사가 있다. 이들 중 5명은 학예직으로 3명은 별정직으로 채용되어 있으며, 교육박물관에는 3명의 학예사가 별정직으로 채용되어 있다. 목관아지에는 학예직으로 1명, 해녀박물관, 제주돌문화공원은 2명씩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다. 감귤박물관, 서귀포시립 이중섭미술관에는 각각 1명씩 학예사를 두고 있는데 이들 또한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서귀포시 기당미술관의 학예사는 기능직 신분으로 채용되어 미술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전문지식을 갖춘 학예사가 신분상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며 업무 또한 학예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대부분 박물관이 일반 행정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고, 박물관 본연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학예사 인력의 확충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사항이다.

학예사 인력 채용 시 간과(看過)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16조(등록 등)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⁵²⁾ 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전공분야와는 상관없이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면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학예사들도 각자의 전공분야가 있는데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예로써 미술관에는 미술전문 큐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예사를 필요로 하는데 고고학, 인류학, 자연사, 과학사 등 미술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타

52) http://www.mct.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laws/laws_view.jsp

분야의 전공자도 학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술관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 등 미술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타 분야의 전공자가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듯 박물관·미술관에 필요한 전공분야가 아닌 학예사의 채용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박물관 전문인력 채용에 있어서 체험학습과 박물관 교육 등을 위한 박물관 교육전문가의 채용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공립박물관의 경우를 얘기해 보았는데, 도내의 사립박물관에서는 등록을 위해서 학예사를 채용하였다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등록이후에는 학예사의 자취를 찾기 힘든 게 사립박물관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학예사를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박물관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채용하여 사립박물관에 지원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인적·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립박물관은 이 전문인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박물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관람객 확보와 박물관 자체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박물관 지원제도의 개선

제주도내 박물관을 활성화하려면 타 지역보다 앞서는 박물관지원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박물관·미술관이 공공을 위한 공적인 자산임을 인식하여 운영주체와 상관없이 공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박물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적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문화시설로써, 교육기관에 준하는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내의 박물관들은 제주도박물관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활동은 미약한 편이다. 협의회에서는 미등록 박물관의 등록과 협의회 가입을 독려하여야 할 것이며, 내실 있는 박물관을 선정하여 박물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박물관·미술관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는 크게 복권기금과, 학예사 지원제도가 있다. 이는 사립박물관·미술관에 한정되어 지원되고 있는데, 복권위원회에서는 복권기금을 통해 ‘사립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 프로그램지원사업’

을 지원하고 있다.

사립박물관·미술관 복권기금 지원사업은 공공박물관·미술관에 비해 그 특성이 보다 분명한 사립박물관·미술관을 거점으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는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지원의 일환으로 (사)한국박물관협회를 통해서 전문성 있는 학예인력을 지원하여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학예인력의 현장 능력 강화와 학예사 고용 촉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일정부분의 지원이 아닌 정부차원의 인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주도가 박물관 특구(特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영월군 박물관 특구’를 지정 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 지역에서 먼저 시급히 ‘제주박물관특구’ 지정을 위해 활발히 움직여야 할 것이다.

3) 공동브랜드 네트워크 마케팅의 도입

제주도내의 박물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박물관들을 공동 브랜드화 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마케팅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박물관들이 제휴를 통한 서로간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루어 내고, 세계자연문화유산이라는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각 박물관과 함께 연계하여 공동 브랜드로써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박물관에서는 우선 지역의 학교, 회사, 기업들과 연계하여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박물관 간에 서로 연계하여 제주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박물관으로 만든 후 테마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박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해 이를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의 보조 등)⁵³⁾의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영세한 사립 박물관이 가지고 있

53)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의 보조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http://www.mct.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laws/laws_view.jsp

는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경비를 보조하여 제주지역 전체의 박물관 자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동브랜드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제주의 아름다움과 청정이미지를 지역의 박물관과 함께 접목시켜 테마별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제주를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이를 통해서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지역브랜드의 통합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도의 문화와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박물관들이 함께 공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박물관 사업은 제주라는 지역을 떠나서 세계로 진출하여 세계의 잠재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핵심 문화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전시패턴의 다양화

우리나라의 박물관의 전시형태는 지역과는 상관없이 대부분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의 흐름에 맞추어 시대별로 진열장을 채우는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제주도나 강원도 전국어디를 가더라도 차별화되지 않은 전시형태인 것이다. 이러한千篇일률적인 전시패턴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하므로, 어떠한 전시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다가설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나열식 전시형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박물관에서 체험적 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전시 방법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며 즐거움도 제공하고, 눈으로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 보거나 그 성과물 등을 가져올 수 있어 박물관 전시방법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 전시에서 주로 시도하고 있는 체험적 전시방법을 조사하여 분류하면 직접적인 체험과 간접적인 체험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직접적인 체험은 신체일부를 이용하여 참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간접적인 체험은 전시매체를 통한 연출방법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 방식을 말한다.

체험적 전시방법을 분류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10> 과 같다.

〈표10〉 체험적 전시연출 분류⁵⁴⁾

구분	연출종류	연출방법
직접적 체험	조작식 (Hand-on)전시	주로 손을 이용하여 전시물을 조립, 해체, 조작하는 등의 직접 만지거나 행위를 해 보는 방법
	인터랙티브 (Interactive)전시	관람객과 전시물과의 대화 방식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는 방법으로서 선택에 의한 영상관람, 정보 제공 등이 있음
	참여 (Participatory)전시	관람객의 참여를 통해 전시를 이끌어 가는 방법으로 전시의 진행을 선택이 많은 어느 한쪽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나 관람객의 대답이나 참여를 통한 진행방법
	시연 (performance) 전시	관람객의 신체 일부를 이용한 직접적인 행위를 통한 정보 전달을 꾀하는 방법. 공예, 공방 등의 체험학습으로 많이 활용
	실험 (Actual Experience) 전시	실제 실험을 통해 원리를 체득하는 방법으로 주로 과학관이나 이벤트에서 많이 이용하며 상설전시는 어려움이 많음
	놀이(Playing) 전시	전시내용을 소재로 한 게임이나 퀴즈, 놀이 등을 통해 전시내용을 이해하는 방법
	현장 체감형 전시	현재는 존재하지 않거나 가기 힘든 곳의 현장을 재현하여 그곳이 직접 가 있는 듯한 분위기를 느껴보는 방법으로 영화의 세트장, 쥐라기공원의 재현 등이 해당함

54) 지환수(2002), 「민간신앙을 주제로 한 박물관 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p.30.

구분	연출종류		연출방법
간접적 체험	영상 전시	정지영상 전시	사진이나 그림자료 등을 이용한 보조적인 설명을 피하는 전시방법, 주로 슬라이드 영상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시
		동적영상 전시	전시물의 설명이나 주제 전달을 위한 보조적인 영상물 또는 주제를 내용으로 영화처럼 만들어 관람하는 전시영상 프로젝터, TV영상 모니터 등을 많이 이용함
		특수영상 전시	3D입체영상, 몰입형 대형영상, 시뮬레이션영상 등 대형 영상이나 오감체험 시스템, 좌석의 움직인 부여 등의 방법을 통해 박진감 넘치는 영상을 구현하는 방법
	모형, 디오라마 전시	현재에 없거나 가기 어려운 곳의 현장 또는 상황을 설명적으로 전시하는 방법, 주로 축소형 디오라마나 모형 등으로 연출됨. 전시물만으로 설명이 곤란한 경우 쓰임새 등을 설명하기 위한 인물모형 등을 등장시켜 이해하기 쉽게 연출하는 방법	
	특수연출전시	영상과 모형, 움직임, 변화 등 다양한 전시매체의 복합적인 연출 방법으로서 매직비전, 텔비전, 3D입체 전시물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음. 이외에도 조명의 변화, 전시물의 움직임 등을 이용하여 보조적인 설명을 하는 방법들도 많이 쓰임.	

현재 제주도내 박물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험적 전시형태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제주박물관의 경우는 다양한 참여 행사들을 개최하고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탁본 체험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⁵⁵⁾ “북촌 돌하르방공원은 전시 주제에 맞춰 돌하르방 만들기, 판화 작업”⁵⁶⁾ 등의 체험활

55) <http://jeju.museum.go.kr>

56) <http://www.dolharbangpark.com>

동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유·초·중등의 단체 체험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민속촌박물관은 전시형태이기는 하나 동물이나 식물을 직접 사육·재배하며 전통가옥에서 장인들이 직접 공예방을 운영하는 등 옛 선조들의 생활 모습을 재현해내고 있으며 시기별로 집줄 놓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⁵⁷⁾ 그 외 “소리섬박물관은 소리와 관련된 악기 등을 직접 연주하는 기회를 제공하며”⁵⁸⁾, “제주교육박물관은 60~70년대 교실을 재현해 놓고 있고”⁵⁹⁾ “서귀포감귤박물관은 감귤체험학습장”⁶⁰⁾을, “아프리카박물관은 문화체험교실로서 미술활동학습장”⁶¹⁾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박물관이 나열식의 전시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체험적 전시형태를 운영한다고 하여도 전체 공간에서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고 그 방법도 한정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박물관의 전시 내용을 효율적으로 알리고 관람객의 기억 속에 인상깊이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시패턴을 좀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전시 공간 전체가 유기적으로 짜여지고 이것이 전시실 곳곳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적 전시형태와 연결된다면 관람객이 전시내용에 계속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시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본질부터 철저히 파악하는 것임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가 있는 전시를 기획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전시내용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5) 자원봉사제도의 활용

박물관은 지역의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민과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박물관에서는 자체운영 프로그램, 기획전, 특별전 등의 홍보, 박물관의 안내, 행사 준비, 박물관 행사 진행

57) <http://www.jejufolk.com>

58) <http://www.sorisummuseum.com>

59) <http://www.jjemuseum.go.kr>

60) <http://www.citrusmuseum.com>

61) <http://www.africamuseum.or.kr>

시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의견교환을 통해 공동체로서의 인식을 갖게 하여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지역주민의 참여는 자원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자발적 차원의 자원봉사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면 우선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알아야 한다. 자원봉사는 급여가 없이 일하는 것이지만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급여는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자원봉사 행위를 통해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동기와 기대를 갖고 있다.

자원 봉사 행위의 동기에는 첫째, 사회 심리적 동기가 있다. 자원봉사는 자기만족감과 보람을 느껴 자기성장의 기회가 되는 점, 개인적인 신념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는 점, 타인과의 만남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점, 단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타인에게서 인정을 받아 사회적 위신을 누릴 수 있는 점 등의 이유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실용적 동기이다. 자원봉사를 함으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경험을 쌓거나 이러한 지식과 기술습득을 통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점,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점,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관련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점, 유사 단체에 취직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개인적인 동기들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다양한 자원봉사 동기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시켜 줄때 비로소 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이들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⁶²⁾

자원봉사활동은 분야별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박물관 안내 및 전시설명을 위한 도슨트 역할로써 도내 국립·공립 박물관·미술관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전시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관람객들과 직접 얼굴을 보면서 전시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내 박물관을 찾는 모든 관람객들에게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한 설명의 혜택을 주기란 현실적

62) 김주호, 용호성(2002), 「예술경영」,김영사, pp70-72.

으로 어렵다. 이들의 제한된 인원으로 인해 문화관광해설사에 의한 설명을 듣는 것은 일부 관람객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다. 부족한 인원을 대신하여 문화관광해설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박물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곳곳에 배치, 박물관 안내 및 전시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제주돌문화공원을 활용한 지역문화 활성화

제주돌문화공원은 민·관의 협약에 의해 설립된 박물관이며, 자연생태공원이다. 지역 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이다.

제주돌문화공원은 다른 박물관에서는 볼 수 없는 ‘곶자왈’⁶³⁾이라는 아름다운 환경 속에 건축물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지역의 문화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제주의 돌문화를 중심으로 조성되어진 공간이다. 제주돌문화공원을 지역의 ‘청소년 교육의 장(場)’과, ‘다양한 공연·예술 무대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1)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의 활용

지역문화의 발전은 기성세대가 아닌 자라나고 있는 꿈나무들의 몫이다. 그들이 어릴 때 보고 배우며 느낀 것은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교실 안 책상에서 배우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큰 감흥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키우기 위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체험학습이다.

63) 곶자왈(Gotjawal)이란 "화산분출시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암괴로 쪼개지면서 분출되어 요철(凹凸)지형을 이루며 쌓여있기 때문에 지하수 함양은 물론, 보온·보습효과를 일으켜 열대식물이 북쪽 한계지점에 자라는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식물이 남쪽 한계지점에 자라는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숲"을 말한다. http://www.gotjawal.com/local/local_1.asp

제주돌문화공원은 다양한 전시물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현재 많은 학교 단위의 '체험학습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돌문화공원이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데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체험학습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제주돌박물관의 전시내용을 별다른 설명없이 자유롭게 관람을 하고 야외전시장을 산책하듯이 둘러보는 것이 보통이다. 학교에서 좀더 신경을 쓴 경우 자체적으로 학습지를 만들어 학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일부 학교에선 인솔 교사들이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는 있으나 이들은 학교현장의 교육전문가이지 박물관에서의 교육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박물관의 전시내용에 대해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데 많은 한계점이 노출된다. 학교 교육 전문가인 교사와 박물관 교육담당자가 상호의견을 전달·수렴하여 정보화시켜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교육을 통해 아직은 드나들기 힘들 박물관의 문턱을 낮게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들 교육전문가들이 해야 할 역할일 것이다.

한편, 기성세대인 교사들에게 제주돌문화공원은 인상 깊은 장소로 기억되지만 정작 청소년이나 아동들은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즉, 체험학습의 장으로 이용되고는 있으나 실제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개발이다. 본 것, 들은 것 보다 더 좋은 교육방법은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다. 제주의 문화를 주제로 한 것인 만큼 체험적 전시 방법으로 전환하여 직접 민속기구 등을 만져보고 사용해 보게 하거나 전시 내용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게임식으로 풀어내거나 퀴즈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박물관 내의 프로그램 과정을 직접 제작하여 찾아온 청소년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전문가의 활용이다. 현재 돌문화공원에는 2명의 학예사가 배치되어 학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까지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박물관은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기능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박물관 교육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다양한 소장 자료와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정작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러한 이유에서 박물관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교육담당자가 필요한 것이다. 교육전문가가 박물관 교육 자료를 만들고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문화관광해설사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더 적극적으로 전시의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한 자료에 대한 설명만 제공한다면 청소년들은 금방 실증을 느낄 것이다. 돌문화공원의 관람 코스를 코너학습화 하여 코너의 곳곳에서 전시해설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주고 체험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그동안 모르고 그냥 지나쳐갔던 전시물들에서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에의 정보제공이다. 교사들 중에는 제주돌문화공원을 처음 접한 교사들도 있으며 여러 번 방문하였어도 달리 청소년들에게 설명해줄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 체험학습 신청을 받으면 학교에 홍보자료를 보내 교사들이 미리 숙지하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알아 청소년들에게 파급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건네는 한마디가 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영향력이 큰 교육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돌문화공원의 자연경관, 전시물들의 내용, 전시 공간 구성 및 그 의미, 중요성 등을 미리 알고 있는 교사라면 제주돌문화공원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미리 그 내용을 알려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2)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의 장'으로 활용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주지역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문화적인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하여왔다. 최근에 들어 그 동안 제주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뮤지컬, 연극, 오페라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들이 많이 기획되고 있어 제주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긴 하나 그 기회가 아직은 많지 않고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보기에는 그 역량이 부족한 편이다.

제주돌문화공원은 지하의 제주돌박물관 위에 자리잡은 야외무대와 잔디광장, 수상무대인 하늘연못, 전통초가 주변 등 공원전체가 하나의 예술 공연무대이다. 이러한 공간을 지역의 예술가들을 위해 항시 개방하여 각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 예술가들은 그들 스스로의 문화·예술적 역량을 키워나가며, 그 수혜자인 제주도민들은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돌문화공원에는 전시를 보는 즐거움과 곳자왈과 어우러진 주변환경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리고 언제라도 그곳에 가면 예술적 감흥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제주돌문화공원을 활용하면 제주 문화예술의 진흥은 물론 도민정서 함양과 문화수준의 향상, 도민화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IV. 결론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열망이 매우 높아졌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다양한 문화강좌, 공연, 전시, 영화, 연극 등은 바쁜 현대인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매체가 되고 있으며, 주말 등을 이용한 소위 ‘문화체험’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보지 않았던 박물관도 가까이에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곳곳에 박물관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박물관이 존재한다. 지역박물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해 나가야 하는 일이 무엇이며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연구하여 미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역의 박물관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앞으로 더욱 강화될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와 수요를 생각할 때 박물관은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발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박물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제주도적인 색채를 제대로 가지고 ‘지역문화 연구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박물관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단지, 관광지의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 활성화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 박물관에 대해 고찰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박물관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도내 36개의 등록 박물관 중에서 제주의 대표적이며 독창적인 문화라 할 수 있는 돌문화를 주제로 조성하여 운영중인 제주돌문화공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용 방안을 연구하였는데, 이를 통해 다음의 다섯 가지를 도출해 내었다.

첫째, 적절한 교육을 거친 전문적인 학예 인력을 확보·배치하여 전시 및 연구,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도내의 박물관을 ‘제주박물관특구’로 지정하여 전문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박물관 간에 연계를 강화하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주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박물관으로 만드는 공동브랜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넷째, 천편일률적인 전시패턴을 지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관람객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전시패턴을 다양화해야 한다.

다섯째, 자원봉사제도를 적절히 활용·운영하여 박물관 안내 및 전시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알리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내의 다양한 박물관 중에서 제주의 돌문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진 제주돌문화공원을 활용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제주돌문화공원을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좋은 자연경관을 가진 제주돌문화공원의 곳곳을 ‘문화·예술 공연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된 제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자연환경만을 일컫는 제주의 이미지는 속빈 강정과 같다. 국내는 물론 세계 속에 제주를 알리고 제주를 이해시키며, 제주도민에게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박물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은 앞으로 변화될 지역민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여 스스로 변화·발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공간과 지역민들의 소통을 통한 지역 문화 활성화의 중심에 박물관이 있어 제 역할을 다 해냄으로써 지역의 문화는 활성화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강정호(2004), 「화산섬, 돌 이야기」, 각.
- 김주호, 용호성(2002), 「예술경영」, 김영사.
- 심상용(2000), 「대중시대 미술관의 모색과 전망 : 그림 없는 미술관」, 이룸.
- 이난영(2003), 「博物館學 入門」, 삼화출판사.
- 이보아(2005), 「박물관학 개론」, 김영사.
- 이윤희, 고광민(2006), 「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 이인범(1998), 「미술관 제도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 전경수(1999),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경수(1998), 「문화의 이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제주도 관광진흥과(2003), 「제주관광 매뉴얼 Jeju」
- 최종호(2004), 「박물관의 이론과 실제」 - 박물관 실무지침(2), 한국박물관협회.

<논문>

- 김윤경(1991),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 교육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진희(2004), 「문화관광자원의 결합을 통한 지역박물관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인석(2006), 「지역박물관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동근(2006), 「한국의 박물관 관광진흥 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응섭(2005), 「韓國의 地域文化 活性化 方案에 관한 研究」,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어혜영(2004), 「사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과 사회적 효과에 관한 조사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은숙(2004), 「지역문화공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춘일(2005), 「지역특성화 전략을 위한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지환수(2002), 「민간신앙을 주제로 한 박물관 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기타>

류재만(2005), 「미술관과 미술교육」, 초등교사 미술연수, 국립현대미술관.

문화관광부(2007),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이보아(2005), 「박물관·미술관의 역사와 현대사회에서의 기능」, 초등교사 미술연수, 국립현대미술관.

이보아(2003), 「박물관 형성과 박물관 경영의 역사 : 서양을 중심으로」, 미술관학 강좌, 국립현대미술관.

이인범(1991), 「국립현대미술관의 형성」, 현대미술관연구, 제2집.

이종철(2007), 「박물관의 사회교육적 기증」, 기본소양교육, 제주돌문화공원.

정준모(2002), 「박물관·미술관의 관람객 개발을 위한 시론」, 현대미술관 연구 제13집.

최성근(2007), 「지방화시대의 박물관정책」, 기본소양교육, 제주돌문화공원.

최종호(2007), 「현대박물관 경영의 새로운 전략적 접근」, 기본소양교육, 제주돌문화공원.

<인터넷 사이트>

꽃자왈사람들 : <http://www.gotjawal.com>

국립제주박물관 : <http://jeju.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 : <http://www.museum.go.kr>

국립현대미술관 : <http://www.moca.go.kr>.

문화관광부 : <http://www.mct.go.kr>

북촌돌하르방공원 : <http://www.dolharbangpark.com>

서귀포감귤박물관 : <http://www.citrusmuseum.com>

소리섬박물관 : <http://www.sorisummuseum.com>

아프리카박물관 : <http://www.africamuseum.or.kr>

예술로 : <http://www.culturenet.or.kr>

제주교육박물관 : <http://www.jjemuseum.go.kr>

제주대학교박물관 : <http://museum.cheju.ac.kr>

제주돌문화공원 : <http://www.jejustonepark.com>

제주도박물관협의회 : <http://www.maojp.org>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 <http://museum.jeju.go.kr>

제주민속촌박물관 : <http://www.jejufolk.com>

제주특별자치도청 : <http://www.jeju.go.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http://www.arko.or.kr>

(사)한국박물관협회 : <http://www.museum.or.kr>



<Summary>

A plan for the activation of the local culture through the museum.

-analyzing 'Jeju Stone Park-

Yoon Ki-Hyuk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Jeju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Adviser: Professor Kim Yong-Hwan

As the quantity of information has increased and the condition of life has improved thanks mainly to the development of multi media, the urge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has been correspondingly widespread among people today. Accordingly, culture and art has come into the limelight and they are now being more and more decentralized.

Therefore, now it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assignments how to activate local cultures. In the course of taking on this assignment rises the importance of museum. Museums once were royalpeople's personal properties, but they gradually changed their forms into what are today's modern styled museums.

The museum should be the place not only for pleasure but also for intellectual satisfaction. It should be the place where various needs aremet systemically, and it should contribute to boosting the quality of life as well.

Jejudo has both the unique regional climate and culture that is rooted by the people's way of life. Now Jejudo urgently needs a museum where studies of the invaluable culture are conducted and people come and visit to know better about the island through the result of the studies.

In this research, som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an ideal museum are presented. An ideal museum should play the role as the culture center, where people share and learn thing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their region.

'Jeju Stone Park'has been chosen to be analyzed for the research, and through this

analysis, how to energize Jeju's local culture is suggested. It has been figured out that the Jeju residents should try to show more interest in their region and try to conserve the unique culture of the island, and the museum itself sh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doing so. In addition, the museum ought to find various ways to meet the local people's needs and liven up the local culture.

Finally yet importantly,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have to support the museum both administratively and financially, and the studies that make the most of the museum should be regularly conducted so as to people can understand more and better about the culture of Jeju island. The activation of the local culture will be attained only when the museum is able to work as a pillar of the cultur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2008, 2.